

베누티의 “차이의 윤리”와 이국화 번역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베르망의 관점으로*

이 미 경
(부산대)

I. 서론

번역학은 번역의 실행 역사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역사가 짧으며, 20세기 중·후반에 와서야 분과학문으로서의 체계를 갖추기 시작한다. 번역을 하나의 독립된 학문 체계로 정립시키고자 많은 학자들과 이론가들이 번역을 언어학과 문학 연구 및 문화사, 철학, 인류학 등의 관점에서 다각도로 접근했으며, 직역과 의역이라는 단순 형태의 과제로부터 현재의 다양한 번역 이론으로 발전해 온 것은 모두 이러한 노력의 결실이다. 이제 번역 연구의 의제는 1960년대와 70년대 주도적이었던 등가 추구에서 1980년대 “문화적 전환”(cultural turn) (Snell-Hornby 47)으로 옮겨감으로써 텍스트로서의 번역을 넘어 문화와 정치 행위로서의 번역에 맞추어지고 있다.

* 이 논문은 2009년도 2단계 두뇌한국(BK) 21 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문화와 정치 행위로서의 번역은 1980년대 중반에서 후반, 인류학과 민족지학, 식민주의 역사에서 탄생한 포스트 식민주의 번역 연구로 급진적인 발전을 이룬다. 사실 포스트 식민주의 이론가들은 역사학자이거나 미국학 교수 혹은 영문학자등 제 3세계 출신 학자들로서 그들의 주요 관점은 번역이라는 현상적 문제라기보다는 번역이 매개하는 문화적 토대의 불평등성이라는 정치 문화적 현상이라 하겠다(로빈슨 8). 이들의 연구 영역은 역사학과 인류학을 망라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문화의 불균형이 상이한 언어 체계에서 파생한다는 기존 방향과는 반대로 문화와 문화 간의 차이에 대한 고찰로부터 시작하여 문화가 언어에 의해 매개된다는 점을 증명해 보이려 한다(10).

이와 같이 헤게모니적 “북쪽 언어”와 그 나머지를 의미하는 “남쪽 언어”라는 구조 아래 범지구적 문화의 불평등성이라는 기초적 사실로부터 시작된(로빈슨 54) 포스트 식민주의 번역관은 베누티(Lawrence Venuti)라는 번역 이론가에서 정점을 이루었다고 평가받는다. 베누티는 번역의 제반 문제를 식민주의적 시각으로 서술하고 있는 『번역의 윤리·차이의 미학을 위하여』¹⁾(*The Scandals of Translation: Towards an ethics of difference*)에서 언어와 문화적 차이들이 존중되는 가운데 번역이 이루어지고, 읽히고, 평가되는 번역의 윤리관을 피력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베누티가 『번역의 윤리』에서 번역의 다양한 실천 양식의 예들을 통해 일관되게 제시하고 있는 ‘차이의 윤리’, 즉 자국화의 논리에 동화되지 않는 이국화 번역 전략을 프랑스의 저명한 번역 이론가 베르망(Antoine Berman)의 고전적 이국화 번역의 관점에서 고찰함으로써, 베누티 이론이 노정하고 있는 문학번역의 실천 양식으로서의 문제들을 살펴보고자 함에 있다.

이국화 번역은 “현대 번역학 연구에서 ‘이국화’(foreignizing)와 ‘자국화’(domesticating)라는 일반적 용어로 통용되는”(Snell-Hornby 145) 번역 전략의 하나로서, 이 개념은 독일어 ‘Verfremdung’(독자를 저자에게 데려가기)과 ‘Entfremdung’(저자를 독자에게 데려가기)라는 슈라이어마허의 고전적 번역 접근법에서 기원하고 있다. 하지만 문학번역에서 외국어 텍스트에 밀착하여 외국 문화 형성의 중요성 및 이질적인 방언과 담화를 시도하는 직역주의를 강조했던

1) 이후 『번역의 윤리』로 표기

솔라이어마허의 이국화 전략은 포스트 식민주의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베누티의 이국화 전략에서 상당히 다른 양상으로 전개된다.

베누티는 ‘차이의 윤리’를 현대의 번역 윤리로 내세우며 이를 위한 실천 형식으로 ‘혼질적 번역 담화’를 주장한다. 하지만 베누티는 이국화 번역의 논리를 전개함에 있어 지배문화와 주변문화, 패권언어와 소수언어, 표준 언어와 비표준 언어 등 번역의 문제를 지나치게 이항 대립적인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국적인 것의 접촉을 통해 독일어를 풍부하게 하자는 취지였던 솔라이어마허의 이국화 번역 논거의 자취는 대부분 사라지고 말았다(Snell-Hornby 147-48).

베누티는 『번역의 윤리』에서 “번역의 자국화적 본질을 은폐하는 모든 문학 번역에 의심의 눈길을 보내는”(11) 베르망의 이국화 번역관에 기본적인 동의를 표명하는데, 베르망은 「번역과 이국적인 것의 시련」(“Translation and the Trials of the Foreign”)에서 원문의 이국성에서 파생하는 원문과 독자의 시련을 논하면서, 번역에 내재하는 원문의 ‘변형 시스템’의 영향을 받지 않는 번역가의 역할을 피력한다.

원문과 번역문을 중개하는 번역가의 역할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국화 번역의 논의에서 베누티와 베르망은 거의 항상 함께 거론되지만 정작 두 이론가가 주장한 내용에 대한 상세한 고찰은 많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베누티의 이국화 전략을 베르망의 관점으로 고찰함으로써 문학번역 영역에서 베누티가 주장하는 번역가의 담화 전략이 내포한 문제를 드러내 보일 것이다. 이는 의미의 재현과는 별개의 목적에 봉사하는 문학번역의 효과적인 실천 방안을 재조명해 보고자 하는 것으로서, 문학번역에서 문화적 타자성이 제거되지 않고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하는 텍스트 번역의 본질에 다가서기 위함이다.

II. 베누티의 혼질적 번역 담화: 소수언어의 지배문화 흔들기

베누티는 번역과 관련된 모든 연구와 비평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을 “번역의 상대적 자율성”(The Translation Studies Reader 5)으로 규정한다. 이 자율성

이란 번역을 외국 텍스트와 번역 언어로 쓰인 처음의 텍스트들로부터 구별시키는 성질로서, 텍스트적인 특징과 효과 그리고 텍스트에 사용된 전략 등을 일컫는다. 베누티는 이러한 복합적인 번역 담화의 특징들과 전략들이 번역을 중개 과정이 없는 투명한 의사전달 행위가 되는 것을 막아주는 요소들이며, 이들에 의해 이국 텍스트의 번역에서 이문화 간의 이해를 막는 장애들이 허용 및 제공됨으로써 번역 연구에서 계속 되풀이되는 번역불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구현된다고 말한다(5).

이국 텍스트의 이국성을 명백하게 드러내 주는 번역을 강조하는 베누티는 이에 대한 실천 방안을 『번역의 윤리』에서 ‘혼질적 번역 담화’라는 색다른 담화 형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혼질적 번역 담화는 우선 소수언어²⁾의 “잔여태”(remainder)의 “해방”(release)(*Scandals* 10)³⁾이라는 개념에 의거하여 이해되어야 한다. 베누티에 의하면 번역 과정에서는 텍스트가 원천 언어에서 목표 언어로 옮겨질 때 원문에서 완전히 옮겨지지 못하고 남는 부분이 필연적으로 존재하게 되는데, 이 남는 부분이 목표언어로 된 번역문에서 고어, 구어, 방언, 임시어 등 다양한 “언어적 변종들”(linguistic variations)(10)로 발산할 가능성을 함유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다양한 언어적 변종들이 바로 베누티가 의미하는 잔여태이다.

그렇다면 혼질적 담화 형태로 표출되는 잔여태의 본질을 조금 더 고찰해보자. 베누티가 강조하는 혼질적인 담화 전략은 무엇보다도 언어를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집단적인 성질을 가진 것으로 바라보는 데에서 비롯된다. 즉 베누티는 언어가 단순히 개인이 일련의 규칙 체계에 의거하여 사용하는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는 것이다. 베누티는 들뢰즈(Gilles Deleuze)와 가타리(Felix Guattari)⁴⁾를 따라 언어를 “하나의 집단적인 힘”(9)으로 파악한다. 그는 언어가

2) 들뢰즈에 의하면, 소수어는 “단순히 방언이나 개인어 같은 하위-언어가 아니[며]... 다수어의 모든 차원들과 요소들이 소수화 되게 하는 잠재력을 지닌 작인”이다(재인용 윤성우 「언어, 번역 그리고 정체성」, 2009년 한국번역학회·통번역연구소 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집 55).

3) ‘*The Scandals of Translation: Towards an ethics of difference*’에서의 인용은 이후의 논의에서 제목 표시 없이 페이지 수만 표기하도록 한다.

4) 베누티가 『번역의 윤리』에서 전개해 나가고 있는 이론은 들뢰즈와 가타리가 『천개의 고원』(*A Thousand Plateaus: Capitalism and Schizophrenia*)에서 다양성 존중의 사상

다양한 형태로써 다양한 문화 계층들과 사회적 제도를 순환하면서 “표준어를 정점으로 위계적으로 자리 잡고”(9) 있으며, 표준어 주위에는 지역적 방언 및 사회적 방언, 은어, 상투어, 슬로건, 혁신적인 문체, 임시적으로 쓰인 말 등이 자리를 잡고 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베누티에 의하면 언어의 사용은 힘의 관계들이 맺어지는 장으로서 한 언어는 특정한 역사적 순간에 소수적 변수들과 이들을 지배하고 있는 다수적 형태가 함께 구성하는 하나의 특수한 국면이다. 이 소수적 변수들을 베누티는 르세르클(Jean-Jacques Lecercle)의 표현을 빌려 “잔여태”라고 정의하면서, 이러한 소수적 변수들을 번역의 과정에서 풀어놓음으로써 다수 언어 속에 잠재되어 있는 이국성을 드러내 보여 주어야 한다고 강조한다(9).

그렇다면 베누티가 주장하는 이상과 같은 잔여태는 번역문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를 띠고 있을까? 이러한 잔여태는 또한 어떻게 창조적인 번역문의 산출에 영향을 미치게 될까? 아울러 번역이라는 과정에 널리 고착되어 있는 자국어 중심적인 번역을 지양하면서 외국 텍스트의 이국성을 드러내는, 다양성과 소수성을 존중하는 번역을 좋은 번역이라고 정의하는 베누티의 번역의 윤리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은 베누티가 주장하는 이국화 번역의 특성과 전략들이 번역의 실제에서 성공적인 실천에 이를 수 있는가를 타진하기 위해 제기되어야 하는 것들이다. 이와 같은 물음의 답을 찾기 위해 우선 베누티가 효과적인 잔여태 해방의 예로 들고 있는 소수언어적 변종들을 살펴보자. 베누티가 제안하는 잔여태의 대표적 형태에는 상투어(cliche), 의고체(archaism), 구어체(colloquialism) 등이 있다.

베누티는 이탈리아 소설 『포스카』(*Fosca*)의 영어 번역에서 “행복할 때면 시간은 날아간다”(“... il tempo vola quando si e felici - diss'ella.”)라는 이탈리아어 원문을 “재미를 볼 때 시간은 날아가죠”(“Time flies when you are having fun”)라고 옮긴 자신의 번역에 대해, 영어에서 이미 관습성을 획득한 이 표현이 담고 있는 반어적 의미가 하나의 잔여태 표출로서 수많은 효과를 산출한다고 주장한다(17). “재미를 보다”(“have fun”)라는 통속적 표현에는 “성행위하다”라

을 펼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인 수목적 사고에 반대되는 것으로서의 땅밑 줄기(Rhizome)적 사고에 많은 부분을 기대고 있다.

는 함축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상투어의 사용은 여주인공 포스카의 특징으로서, 포스카는 대화중에 상투적인 낭만적 사상을 짙막하게 표현하거나 반어적 표현의 사용을 즐긴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어로 된 상투어를 번역 담화의 한 형태로 사용함으로써 의고적인 전체 맥락 가운데 불쑥 나온 이 표현이 서술의 사실적 환상을 깨는 동시에 독자로 하여금 자신이 읽고 있는 것이 번역문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심지어 대중적인 소설이 아닌 철학서적에서도 잔여태는 효과적으로 표출될 수 있다고 베누티는 주장하면서, 일상언어(日常言語) 분석에서 철학의 의의를 발견했던 오스트리아 출신 영국 논리철학자인 비트겐슈타인(Ludwig Wittgenstein)의 『철학적 탐구』(*Philosophical Investigations*)의 번역본에 쓰인 구어체 표현을 예로 들고 있다. 『철학적 탐구』는 비트겐슈타인의 제자이자 오랜 친구였던 엔스컴(G. E. M. Anscombe)이 번역한 것으로, 이 속에서도 엔스컴이 사용했던 독특한 언어 표현들이 원문이 갖고 있는 잔여태를 풀어내면서 여러가지 효과를 산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자면, 엔스컴은 “철학적 문제들은 언어가 휴가를 보내고 있을 때 발생한다”라는 문장에서 “goes on holiday”라는 구어체 표현을 썼다. 베누티는 이 표현이 영미권의 철학적 담화의 전통에서는 뜻밖의 것이라고 하면서, 바로 이 의외성이 표준어로 이루어진 다른 표현들과 대비되면서 다양한 영어 의미들을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증식시킨다고 설명한다(111). 이것은 언어를 분석함에 있어 의미를 정신적이고 영적인 본질로 파악하는 형이상학적 태도를 비판하고 단어의 의미를 특정한 사회적 관행, 즉 “언어 게임”으로 간주했던 비트겐슈타인의 철학과 관련하여 적절하다고 본 것이다. 형이상학자 혹은 논리 실증주의 철학자들이 단어의 의미를 실제적인 적용으로부터 분리하여 추상적 사변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언어는 사실 휴가를 갖는 것, 즉 본업을 쉬게 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111). 따라서 엔스컴이 선택한 구어체라는 잔여태의 표출이 번역문 속에서 예상치 않았던 파급 효과를 가져 오면서 하나의 진술문에 대한 다양한 해석의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상의 고찰에서 주목할 점은 번역가의 ‘가시성’이라는 의제가 베누티가 실천 양식으로 제시하는 혼절적 번역 담화의 논의 속에 끊임없이 환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번역가의 ‘가시성’은 1980년대 중반 문학번역 연구에 새로운 패러다

임을 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럽적 사고와 언어를 중심으로 하는 원문주의, 즉 ‘규범적 번역’(Prescriptive Translation)에 반기를 들고 일어났던 ‘기술적 번역학’(Descriptive Translation Studies)의 연구 방향과도 일치한다.

기술적 번역 연구에서는 “번역이 한 방향에만 관계된 사실들의 기술”(Toury 19)이라는 대전제 아래, 번역에서 고려해야 할 유일한 시스템을 목표문화 영역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기술적 번역학 이론가들은 연구의 초점을 ‘텍스트로서의 번역’으로부터 ‘문화와 정치 행위로서의 번역’에 두었던 것이다. “특정 목적을 위해 원천 텍스트에 대한 어느 정도의 조작을 수반하게 되어 있다”(Hermans 11)는 의제에 동의하는 소위 ‘조작학과’(Manipulation School)⁵⁾는 모든 번역이 문학 텍스트의 수용 또는 거부의 여부를 시스템적으로 지배하는 요인들, 즉 권력이나 이데올로기, 체제 혹은 조작 등의 이슈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바스넷과 함께 번역학을 개별적 분과학문으로서 1980년대의 성공스토리라고 공언했던 르페브르(Andre Lefevre)는 번역에서 개작(rewriting)의 불가피성과 특히 목표 언어 문화의 문학 사조에서 번역자에게 부여된 이데올로기는 절대적이라고 평가하였으며, 지배적 문학 사조의 변화에 따라 고전 작품들이 재해석(reinterpret)과 개작(rewrite)을 통해 정전에 위상을 누리는 것에 대해 “개작의 힘을 보여주는 사례”라고까지 말한다(Munday 129-30에서 인용). 이렇듯, 90년대 번역학 연구에서 조작학이나 포스트 식민주의 번역 이론가들에게 번역 연구의 키워드는 번역가의 “가시성”이며, 이러한 연구 경향은 번역과 문화라는 의제 아래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번역가의 가시성에 대한 의제는 고전적 번역관과 포스트 식민주의적 번역관에서 서로 대립 관계에 있다. 오랫동안 번역가의 담화는 저자의 담화 형식을

5) “조작학과”는 1985년 허만스(Theo Hermans)의 「문학의 조작 (“The Manipulation of Literature”)이라는 에세이를 필두로 나타난, “목표언어의 문학적 관점에서 볼 때, 모든 번역은 특정 목적을 위해 원천 텍스트의 조작을 어느 정도 내포하고 있다”는 공통된 견해를 바탕으로 하여 발전된 연구학파이다. 조작학파의 이론은 기술번역학을 전개시킨 투리(Gideon Toury)와 기술적 번역의 모델을 제시한 랑베르(Jose Lambert), 고프(Hendrik van Gorp), 드라마 번역의 바스넷, 다시쓰기 번역의 르페브르(Andre Lefevre) 등 번역 연구가들에 의해 “포괄적인 이론과 번역에서의 실제적인 연구 등에 기초를 둔 문학 번역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립하기 위한 목적”을 성취했다고 평가되고 있다(Snell-Hornby 48).

모방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원문에 대한 ‘충실’과 번역문의 ‘등가’를 추구하는 고전적인 번역의 개념으로 보자면, 번역가의 역할은 저자의 목소리를 최대한 닮게 흉내 냄으로써 원문과 최대한 동일한 효과를 내는 것이다. 번역문에서 마치 저자가 말하고 있는 듯한 유려한 번역을 표방하는 이러한 원문중심주의는 번역가를 또 하나의 저자로 상정하는⁶⁾ 베누티의 논리와 대척점을 이룬다. 베누티에게 번역가는 다양한 ‘언어적 변종들’을 이용하여 지배문화의 표준적인 담화를 전복시키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역할을 떠맡는 존재이다. 베누티가 주장하는 이러한 번역가의 ‘가시성’에 의해 번역가는 시공을 초월하여 작품을 존속시켜 주는 “창의적인 예술가”이자 “두 문화 사이의 조정자 및 해석자;” 혹은 “문화의 지속과 보급을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인물”(Bassnett 4)로 부상하는 한편, 번역은 “미심쩍은 행위”(4)로 격하되고 만다.

언어가 시간을 달리 하면서 다르게 이해되는 본질을 갖고 있고, 동시대에서조차 언어라는 것이 지역적 방언이나 은어, 전문어 등 언어 사용자의 계층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이해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번역에서 원문이 동일한 담화가 아니라, 독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수많은 이해 가능성(intelligibility)을 내포하는 혼질적인 담화 형태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베누티의 주장은 이론적인 설득력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베누티가 주장하는 번역가의 가시성은 패권언어와 소수언어 개념에 의거하여 전개되는 까닭에 그의 논리가 자신이 세운 가정 속에서만 작동된다는 적용의 한계를 드러낸다.

베누티가 주장하는 번역가의 혼질적 담화는 우선 소수문학이 영어 문화권에서 번역될 때 다수자의 논리에 근거한 자국화에 묻히지 않고 그것이 소수문학으로부터의 번역임을 드러내는 방안으로 제시되는 전략의 실천 형식이다. 베누티는 이를 소수문학이 번역 과정에서 다수언어 문화의 입맛에 맞게 변질되는 자국적 정체성 형성에 의해 소수문학의 특성이 발휘되지 못하게 되는 현상을

6) 베누티는 『번역의 윤리』 제 2장 ‘Authorship’에서 ‘저자성’의 권위가 번역문을 산출하는 번역가에게도 주어질 수 있다고 하면서, 그리스 시인 사포(Sappho)의 모작 『빌리티스의 노래』(Les Chansons de Bilitis)를 쓴 프랑스 작가 루이스(Pierre Louÿs)의 문학적 장난을 예로 들어 ‘파생적 저자성’을 주장한다. 그는 ‘저자성’이 저자에게만 부여되고 있는 현실적 상황은 권위적인 학계의 분위기에서 비롯된 학술 개념에 대한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한다(31-46).

막고자 하는 “소수화 기획”(minoritizing project)(13)의 일환으로 정의한다. 베누티는 이미 확립되어 있는 모든 기득권 혹은 다수 세력은 번역의 실행을 통해 전복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번역 기획이 이러한 전복을 기도하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번역가가 자신의 번역 기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잔여태의 해방은 다수의 힘에 의해 억압되어 있는 소수 세력의 드러냄인 것이다. 이 소수 세력은 언어로 보자면, 현재 전 지구적인 언어라 할 수 있는 영어에 상대적 개념인 소수언어일 것이고, 개별적 언어 내에서 고찰하자면,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의 다수자들의 언어, 즉 표준 방언에 상대적인 지역 방언이나 특수한 어휘가 될 것이다. 더 나아가 번역의 대상이 되는 텍스트에 있어서도 살펴보자면, 출발 문화 내에서 소수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서 그 문화의 정전 체계 내에서 주변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외국 텍스트가 될 것이다.

사실 영어가 세계 언어로서의 지위를 차지함에 따라 영어라는 언어에 동반된 문화적인 힘이 어떤 방식으로든 목표언어 사용자들의 정신에 작용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포스트 식민주의 접근의 근본에는 유럽중심주의 사고에 대한 반발과, 식민주의 기획과 함께 세계보편언어의 지위를 획득하게 된 영어에 대한 저항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이와 같이 베누티는 자신의 소수화 기획의 의도가 세계적으로 경제·정치적 패권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영향으로 영어가 세계 패권화 되고 있는 것에 대한 반발의 표출이라는 것임을 숨기지 않는다. 따라서 번역을 통해 미국 문화 내의 표준어와 지배적인 문화적 형태들을 소수화하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외국 텍스트의 역할을 강조한다.

베누티는 이러한 소수화 기획 의도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텍스트로 “혁신적인 문체의 텍스트”(10)를 꼽는다. 당시 이탈리아를 지배하던 감상적 리얼리즘에 반해 고딕 소설풍의 이야기와 실험적 리얼리즘을 선호했던 베누티는 자신이 이탈리아의 소수 작가인 타르케티(Tarchetti)의 『포스카』의 번역을 통해서 영어 가운데 일종의 소수화 효과를 산출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이 타르케티를 선택했던 이유로 그(타르케티)의 작품의 특성이 “표준 영어에 계속적인 변형을 가하는 번역 담화를 전개하도록 강요했다”(14)고 털어 놓는다. 타르케티의 작품 자체가 현대와는 동떨어진 시대, 즉 다른 문화·역사적 상황에서 나왔기 때문에 베누티는 자신의 번역 속에서 그러한 사실이 고어의 형태를 띠면서 현재의 영어 상황 속에서 의미 작용을 함으로써 어떤

특수한 문학적 잔여태를 산출하게 될 것으로 보았다. 번역문에서 상투어나 구어체의 적절한 사용은 독자들로 하여금 단일한 어조의 표준어로 된 번역문의 의도하는 사실주의적 환상(realistic fantasy)으로부터 깨어나도록 함으로써, 번역문 자체가 함축하는 다양한 의미를 환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베누티가 주장하는 잔여태의 해방이라는 번역 담화 전략은 원문과 번역문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차이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것에 있다. 번역의 이국성을 은폐하는 모든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외부적 요인의 드러냄이 바로 베누티가 주장하는 ‘차이의 윤리’의 본질인 것이다. 베누티는 차이를 드러내는 담화 전략이 독서 중에 읽고 있는 책이 번역이라는 사실을 인식시키며 독자층에게 번역을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독서 양식에 변화를 가져 온다고 주장한다(24-43). 하지만 익숙지 않은 번역 담화가 독자로 하여금 자신이 읽고 있는 단어의 의미를 다시 생각함으로써 텍스트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내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기획 의도가 혁신적인 문체의 텍스트를 전제조건으로 한다는 것은 베누티의 이국화 번역의 실천이 특정한 문체로 서술된 선택적인 텍스트에서만 가능하다는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번역의 환경이 “영미권 시장에 한정”(specifically to the Anglo-American market)(Snell-Hornby 146)되고 있다는 것은 베누티의 이론이 편향적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다는 또 다른 한계의 예다. 소위 지배문화 언어인 영어로 소수문학이 번역되는 사례(영국과 미국의 연간 출간 서적 중 번역서의 비율 2~4%)보다 소수언어로 번역되는 영어권 문학(6~15%)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Venuti 88), 지배문화권 내에서 영어로 번역되는 소수문학의 정체성을 확립하려 했던 베누티의 소수화 기획 의도는 주변문화권 내에서 소수언어로 번역되는 영미문학의 경우를 충족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번역에 개재하는 두 언어는 원천언어와 목표언어라는 개념에서 서로 상대적이다. 한 언어는 원천언어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목표언어가 되기도 한다. 베누티가 지향하는 번역의 윤리를 영어에서 소수언어로 번역하는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혼질적 번역 담화’로 산출된 번역문은 영어가 함축하고 있는 ‘잔여태’의 표출에 의해 오히려 소수언어 체계를 위협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소수문학의 정체성 찾기를 통한 번역문학의 위치 정립이라는 기획의도를 표방한 베누티의 번역의 윤리 개념은 영어가 다수를 점하는 현대의 구도에서는 불

완전한 이론으로 남게 된다.

III. 베르망의 ‘이국적인 것의 시련’: 번역의 자국화적 본질

본 장은 베르망의 ‘이국적인 것의 시련’을 논하기에 앞서 번역가의 중개자로서의 고충을 해석학적 관점으로 개관하면서 시작하고자 한다. 번역가의 고충에 대한 해석학적 관점은 저자에 대한 충성을 전제로 하는 ‘원문중심주의’ 번역 태도에서 발생하며, 앞 장에서 논의했던 베누티의 번역가의 가시성이라는 의제와 대척점에 있다.

독일의 철학자 리콤프(Paul Ricoeur)는 번역에 대해 해석학적인 성찰을 담아내고 있는 『번역에 대하여』(*Sur La Traduction*)라는 에세이집에서 베르망의 ‘이국적인 것의 시련’에 대해 논하고 있는데, 그는 번역자의 시련이 저자와 독자와의 중개 역할을 떠맡는데서 기인한다고 말한다(4). 리콤프는 또한 번역가의 시련에 대해 “두 주인을 섬기는 것”(to serve two masters)이라는 로젠츠바이크(Franz Rosenzweig)의 역설을 인용하여 설명한다. 번역가에게 두 주인이란 한편으로 원작에 담겨 있는 이국적인 것과 다른 한편으로 이국적인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독자의 욕망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리콤프는 번역가의 시련이 원저자에 대한 충실성에 도달하고자 하는 희망과 원저자를 배반했다는 의혹에 의해 이중으로 감시를 받는 번역 특유의 문제 틀에 속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5).

베르망은 「번역과 이국적인 것의 시련」에서 번역에 내재화된 텍스트의 ‘변형 시스템’(deforming system)에 불가항력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번역가의 입장을 보여주고자 한다. 그는 상기 에세이에서 ‘이국적인 것의 시련’이라는 개념을 두 가지로 설명한다. 하나는 이국 텍스트와 그 단어가 주는 이질성을 경험해야 하는 목표 문화의 입장에서 본 시련이고, 다른 하나는 원천 언어의 언어적 토양으로부터 완전히 추출되어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이국 텍스트의 입장에서 본 시련이 그것이다.

7) 로젠츠바이크(1886-1929). 독일 태생의 신학자이자 철학자.

리콥르는 베르망의 ‘preuve’(trial)가 “감내해야 하는 고통”을 뜻하는 동시에 “수련”을 뜻하는 말로서 번역 작업의 고통을 가장 잘 드러내준다고 말한다(3). 리콥르는 또한 번역을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용어인 “회상의 작업”과 “애도의 작업”(3)에 비유하는데, 이유는 번역이 무언가를 구해내는 한편 어느 정도의 상실을 감수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두 가지 형태의 작업에 수반되는 시련은 이국 언어와 모국어라는 두 축 사이에서 서로 상대적인 “저항”(resistance)(4) 형태를 띤다고 설명한다. 리콥르에 의하면 작품과 원저자 및 원문 언어 등이 지닌 이국적인 것은 번역 과정에서 모국어를 신성시하는 경향에 도전함으로써 수용 언어권의 암묵적 거부라는 ‘저항’으로, 그리고 이국 언어는 번역의 착수 자체를 저지하려는 목적을 띤 ‘저항’으로 표출된다. 그리하여 번역가는 번역의 초기 단계에서 “번역 불가능성을 추정함으로써” 이러한 이국 언어 쪽의 저항과 직면한다(4-5). 이와 같이 이국 텍스트로부터의 저항과 수용언어로부터의 저항에 직면하는 번역가는 번역 과정에서 “원문과 번역문 사이에서 자신의 모국어가 이국성을 담아내기를 바라는 한편 이국의 언어가 모국어 속에 녹아들어 흔적을 남기지 않기를 바라는”(Berman, 재인용 Ricoeur 8) 양면성의 해결 방법을 고민하게 되는 것이다.

베르망의 논의로 돌아오자. 베르망은 번역에서의 ‘이국적인 것의 시련’을 상기 두 가지 측면에서 성공적으로 실현했던 사람으로 횡델린(Holderlin)을 꼽는다. 베르망에 의하면 대부분의 “고전작품”의 번역들이 그 ‘이질성’을 약화시키거나 말소시켰던 반면 횡델린의 소포클레스(Sophocles)번역은 그리스 비극이 지니고 있는 “이질성”(the strangeness)을 드러낸다(284). 즉 이러한 시도를 통해 번역행위는 가장 독특한 힘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데, 외국작품이 지니고 있는 진정한 핵심, 아주 깊숙이 묻혀 있는 가장 고유의 것이면서 그 고유한 것으로부터 가장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베르망은 횡델린의 소포클레스 번역과 관련하여, 횡델린에게 번역이란 일련의 번역 언어, 즉 타 언어로 원작의 이질성을 강조하는 강화 과정을 통해 원작 속에 억압되어 있는 폭력성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다(284). 이러한 이질성의 강조가 독자로 하여금 원작에 다가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베르망은 문학의 영역에서 의미를 다루는 번역 유형이 언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작품을 다루는 번역 유형의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이국성을

부정하고 모국어로 “순화”(acclimation)시키거나 “자연화”(naturalization)하는 번역 풍토로 변화된 현상을 비판하면서 “이국적인 것을 이국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285) 번역 활동의 윤리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베르망은 번역 활동의 고유 목적이 왜곡됨으로써 본질이 아닌 어떤 다른 것에 순화되어 온 것은 번역 과정에서 텍스트의 이국성의 시도를 막는 텍스트의 변형이 개입되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분석들”(the analytic)⁸⁾(286)을 통한 번역의 변형 시스템에 대한 조사를 제안한다. 번역의 변형 시스템은 번역을 그 본질적인 목적에서 이탈하게 하는 일련의 경향들로서, 모든 번역가는 예외 없이 이러한 변형 시스템에 노출된다는 것이다(286).

우리가 같은 것을 다른 방식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것이 항상 가능하다는 언어 사용의 전제에서 출발한다면, 외국어를 번역하는 번역자가 할 일은 같은 것을 다른 말로 하는 것이다(Ricoeur 25). 번역가는 이 과정에서 이해되지 못한 주장을 재정립하게 되는데 이는 설명, 즉 “주름이 접힌 곳을 펴는 것이다”(25). 9) 번역에서 일어나는 원문의 합리화나 설명, 확장, 윤색 등은 결국 원문의 의미 전달에 중심을 둔 번역 관행과 맞닿아 있고, 이러한 번역의 본질에 의해 번역은 원문보다 더 “명료하고,” “우아하며,” “유려하면서,” “순수한” 번역 텍스트의 산출이라는 동일한 결과로 귀착된다(Berman 297). 베르망은 이성 중심의 플라톤적 분리에 기초한 “의미의 윤색적 복원”(296)은 서양 번역의 전통이라고 하면서, 유려한 번역은 곧 문자가 의미에 희생된 것이라고 주장한다(297).

원문의 변형 시스템 속에서 번역을 그 본질적 목적에서 멀어지게 하는 부

-
- 8) 베르망은 이러한 조사를 “부정적 분석들”이라는 용어로 정의하면서 다음과 같은 12 가지 번역의 자국화적 본질을 제시하고 있다 1. 합리화(rationalization) 2. 명확화(clarification) 3. 확장(expansion) 4. 고상화(ennoblement) 5. 질적 피폐화(qualitative impoverishment) 6. 양적 피폐화(quantitative impoverishment) 7. 음조의 파괴(The destruction of rhythms) 8. 기저 의미망의 파괴(The destruction of underlying networks of signification) 9. 언어 패턴의 파괴(The destruction of linguistic patternings) 10. 자국어망의 파괴 혹은 이국화(The destruction of vernacular networks or their exoticization) 11. 표현과 관용구의 파괴(The destruction of expressions and idioms) 12. 언어 중층성의 삭제(The effacement of the superimposition of languages)
- 9) 윤성우는 리코르의 “Sur la Traduction”의 번역문 역주에서, ‘설명하다’는 불어로 “expliquer”이고 이는 ‘ex(펴다)-pli(주름)quer’로 이해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정적 요인들인 베르망의 ‘부정적 분석들’은 ‘자민족 중심적,’ ‘부가적,’ ‘과잉 텍스트적’인 번역과 관련 있으며, 번역에서 번역가의 의지에 상관없이 작동하는 기제다. 베르망은 번역가가 이러한 일련의 경향 혹은 힘(forces)을 인식하는 것으로서 자유로워 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고 단언한다(286). 베누티의 논리를 베르망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번역의 자국화 본질에서 벗어나기 위해 번역가가 번역에 개재하는 불평등한 모종의 세력을 자각함으로써 번역가의 번역 담화 전략에 의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베누티의 논리 역시 착각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번역 본유의 ‘부정적 분석들’은 어떻게 극복될 수 있는가? 베르망은 부정적 분석들은 상대를 이루는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한다(286). 베르망은 ‘부정적 분석들’이 번역에서 변형을 제한하는 작용에 대한 분석인 ‘긍정적 분석들’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직역을 실천 양식으로 제안한다. 문학번역에서 이국성의 성취가 두 언어가 다양한 형태로 “충돌”(collision)하고 어떻게든지 해서 “연결되는”(couple) 과정인 “기표의 조작”(manipulation of signifiers)에 의해 실현된다는 것이다(285). 이는 “축어성”(逐語性, literalness) (Benjamin 79)에 기초한 원문의 의도(intentio)(79)를 번역문에서 재생해야 한다는 벤야민의 ‘직역주의’와도 합치한다. 벤야민은 「번역가의 과제」에서 ‘축어성’을 번역작품이 “언어적인 보완을 갈망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79). 이러한 직역주의는 원문중심주의자들의 일관된 논리로서 문학번역에서 핵심적인 실천 양식이라 하겠다.

직역에 대한 논의를 전개시키기 위해 베르망은 자신의 에세이에서 푸코(Michel Foucault)를 인용하고 있다. 푸코는 대립적인 언어 사용 양상으로 문학번역과 비문학번역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두 종류의 번역이 존재함을 인정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 이들은 동일한 목적 즉 동일한 본질을 갖고 있지 않다. 한 종류의 번역에서는 의미 혹은 수사적인 가치와 같은 무언가가 분명히 동일한 상태로 유지된 채 타 언어로 이전된다. 이러한 번역은 “비슷하기보다 동일할수록” 좋은 번역이 된다. [...] 그 다음에는 한 언어를 다른 언어를 향해 던지는 번역이 있는데 [...] 원문 텍스트를 발사체라고 생각하고 번역 언어를 과녁으로 대하는 것이다. 이러한 번역의 목적은 의미를 다른 곳에서 되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

나라 번역 텍스트를 사용하여 번역 언어를 탈선시키는 것이다. (285)

베르망은 푸코의 이와 같은 정의가 (넓은 의미에서의) 소위 ‘문학번역’을 기술, 과학 및 광고 등 ‘비문학번역’으로부터 분리시키면서 번역의 전 분야를 나누는 분리와 상응한다고 말한다(285). 문학작품에서 직역주의는 문학번역이 [작품] (works)에 중점을 둔다는 사실과 관계 있다. 텍스트는 언어에 속박되므로 문학번역은 필연적으로 단어의 의미에 천착하는 기표의 조작 활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이유는 문학번역에서 작품에 집중하는 것은 [의미의 복원] (restitution of meaning)(296)보다 더 본질적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비문학번역은 실제적 글쓰기, 즉 “정신”(mind)보다는 “머리”(brain)의 산물인 외형적 실재와 연관된 주제를 다루는 것으로서, 법적, 과학적, 기술적 텍스트에서부터 직업이나 여가 활동 그리고 사회적인 사건들에 관한 모든 묘사가 해당된다(Newmark 106). 이러한 번역에서는 외형적 실재를 표현하거나 혹은 설명하는 텍스트의 의미를 전달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므로, 다른 언어 사용자인 독자들에게 원문의 언어로 된 텍스트의 내용을 풀어서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야 하는 기능을 실행한다. 따라서 번역에서 이국성은 자국화 현상에 의해 소멸되고, 이러한 자국화는 문학번역보다는 비문학번역에서 효과적으로 실행되는 것이다.

결국 문학작품을 이해한다는 것은 같은 언어 내에서도 어려우며, 작가에 대한 이해가 작가의 언어정신과 특성에 대한 정확하고 심오한 통찰력을 전제로 한다면, 유사성이 적은 외국어작품을 다룰 때의 언어란 가장 고도로 발전된 기술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Schleiermacher 39). 이국화 번역은 “모든 타자에 이국적인 것이 담겨 있다”는 철학적 사유와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는 일상적 타자들과 더불어 같은 것을 다르게 정의하고, 표현하고, 설명하고 말한다(Ricoeur 25). 우리는 단어들과 문장들 그리고 텍스트들이라는 도구로 타자에게 말을 걸지만, 우리는 이러한 도구들의 의미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항상 끝없는 물음에 직면하게 된다. 설명이 거듭되면 될수록 또 다른 해명의 요구가 나타나는데, 이는 “검열과 금기에 의해 감추어진 온전한 여백, 숨겨진 다양한 모습들이 교차하는 [말해지지 않은 것]의 여백이 존재”(Ricoeur 26)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학에서 이국화의 구현은 철학적인 사유에 바탕을 둔 번역가의 어휘

선택의 엄밀성에 의해 실현된다고 하겠다. 이는 번역에 내재하는 자국화 본질 외에 정치, 사회적인 외부적 요인을 이국화의 저해 요인으로 상정하는 베누티의 주장과 대조를 이루며, 이러한 상반된 관점에 따라 베누티와 베르망의 이론은 번역가의 담화 양식에서 상이한 양상을 나타내게 된다.

IV. 결론

문화의 차이는 이제 번역의 실제와 번역학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되었다. 각 언어에 내재하는 통사적, 문법적 차이와 시간의 추이에 따라 달라지는 언어의 의미를 추적하는 의미론적 접근은 번역의 산출에 관계되는 무수한 언어학 외적 요인들을 중심으로 고찰하는 현대 번역학 연구에서는 더 이상 큰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잔 바스넷은 번역에 대한 상이한 접근 방식인 언어학적 접근 방식과 문화적 접근 방식 사이의 뚜렷한 구분은 1980년대 이후 사라져 버렸다고 단언하며, 그 이유를 “언어학이 더욱 공공연하게 문화적 경향을 띠는 쪽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문화사에 바탕을 둔 번역 연구자들이 이제 그 입장에 덜 방어적이 되었기 때문”(3)으로 분석한다.

이와 같이 번역의 연구는 통시적이며 공시적인 언어 연구와 더불어 동시대의 상이한 문화 읽기로 큰 틀을 잡아가고 있는 듯하다. 따라서 번역의 본질상, 상이한 언어를 사용하는 독자를 위해 원문을 목표언어로 옮기는 번역가는 언어와 시간이라는 장애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저자와 독자의 상이한 문화적 배경을 읽어내면서, 필연적으로 “두 방향의 정체성 형성”(identity formation that is double-edged)(Venuti, *Scandals* 68)에 관련된다. 번역에서 자국화 번역과 이국화 번역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서 논의의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자국에 이로운 “동화의 미학”(선영아 195)으로 혹은 이국 텍스트의 이국성을 존중하는 “차이의 윤리”(195)라는 개념 아래 목표문화 속으로 수용된다.¹⁰⁾ 따라서

10) 선영아는 동화의 모델로 프랑스의 사례를, 이화의 모델로 독일 낭만주의의 사례를 들어, 자국화 번역과 이국화 번역의 상대적인 개념의 구현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각 입장의 연원과 맥락을 동화의 미학과 차이의 윤리라는 담론 내부에서 추적하고 있

번역가의 가치중립적인 번역문 생산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며, 번역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번역가가 자신의 담화 양식을 표명할 것을 암묵적으로 요구받는다 고 하겠다.

『번역의 윤리』에서 베누티가 피력하고 있는 포스트 식민주의 번역관은 소수언어 사용자 입장에서 자국의 언어를 풍부히 함과 동시에 자국 문화의 확장을 피하기 위한 제 1의 목적을 갖고 있다. 이점에서 우리는 번역 언어의 상대성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다수언어든 소수언어든, 하나의 언어는 언제든 지 원문 텍스트를 생산하는 데, 혹은 번역문을 생산하는 데 사용된다.

베누티와 베르망은 번역에서 이국 텍스트가 간직하고 있는 이국 문화의 타자성을 드러내야 한다는 기본적인 개념에서 동일한 입장을 취한다. 하지만 베르망이 번역의 자국화 경향을 번역에 내재하는 본질로 파악하고 있는 것에 반해, 베누티는 이와 함께 번역문의 산출 과정에 개입하는 자국의 문화적이고 정치적인 이해관계라는 외재적인 요인을 부각시킨다. 그 결과 번역의 실천에서 번역가의 정체성은 가시성과 비가시성이라는 상반된 의제와 함께 대립적인 실천 형식을 보이게 된다.

번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또 다른 저자의 지위를 상징하는 베누티의 이국화 번역은 번역에서 초월적인 지위를 누리는 ‘원문중심주의’에 대한 반발에서 나왔으나, 베누티는 자신이 제시하고 있는 혼질적 번역 담화 역시 또 하나의 초월적인 지위의 상징을 전제로 한다는 점은 간과하고 있는 듯하다. 베누티의 이론은 패권언어와 소수언어의 구분 혹은 번역가의 가시적 지위 상징 등 자신이 규정한 또 다른 기준에서만 작동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소수 지향 번역이 “자국 문학과 대상 독자층과의 관련 하에 외국 텍스트의 시대나 장르, 문체 등을 고려한 ‘전략의 선택’(choice of strategies)에 달려있다”(14)는 베누티의 주장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베누티의 편향적 이론 전개에 대한 뎀(Anthony Pym)의 다음과 같은 지적은 날카롭다.

베누티가 안내하는 영어 번역자들과 이론가들의 탐방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들 대부분에 정치적으로 연관되거나 종교적 신념에 관한, 혹은 때

다. (『동화의 미학과 차이의 윤리-문학 번역의 두 가지 명제』, 『번역학 연구』. 2009년 겨울 제 9권 4호)

때로 희롱 섞인 주석이 달려 있다는 것이다. 온갖 나쁜 이들은 자유주의적 인문주의, 제국주의, 성차별주의 그리고/혹은 개인주의와 관련되어 있다. 몇 안 되는 좋은 이들은 자신들이 유창한 번역에 반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논리로, 이와 같은 불쾌한 것들에 일반적으로 저항하고 있다. (재인용 Snell-Hornby 146-47)

상기에서 보다시피 다수언어나 소수언어의 정의에서부터 그가 자신의 이론을 펼치기 위해 선택했던 텍스트들은 모두 특수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주석이 달린 것들로서 문학에서 가장 고도의 지적 활동을 의미하는 자유주의적 인문주의나 혹은 개인주의까지도 [불쾌한 것들](such nasties)이 되어 버린다.

문학번역이 수용가의 반응을 상정하지 않는 예술의 한 갈래라는 벤야민의 번역관(69)을 상기해 본다면, 특히 해석의 다양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문학 작품의 번역에서 ‘차이의 윤리’의 실천 양상은 상당히 중요하다. 이 실천 양상은 번역가의 가시성이라는 단순한 논리에 순행하지 않는 복잡한 역학관계에 따라 작동한다. 번역가는 번역을 실행함에 있어, 단어나 어휘의 선택을 결정하게 되는 수많은 요인을 고려함으로써 끊임없는 긴장 상태에 놓인다. 이와 같은 번역가의 중개적 위치에 대한 회의와 고뇌는 분명히 문학번역의 특유의 문제다. 하지만 베누티는 ‘혼질적 번역 담화’라는 자신의 머리속에 구성된 단선적인 논리에 의거 이러한 번역가의 시련을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의제로 단순화해 버린다.

결론적으로 번역이 원본의 축소 또는 배반으로 치부되는 낡은 개념에서 벗어나 원천 텍스트의 영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번역가의 가시성을 강력한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베누티의 이국화 번역의 실천 양상은 문학번역에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이론으로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선영아. 2008. 「‘동화의 미학’과 ‘차이의 윤리’-문학 번역의 두 가지 명제」. 『번역학 연구』. 9.4:195-219.

- 윤성우, 이향 옮김. 2006. 『번역론-번역에 관한 철학적 성찰』. 서울: 철학과 현실사 (Paul Ricoeur. 2004. *Sur la Traduction*. Paris: Bayard).
- 임호경 옮김. 2006. 『번역의 윤리-차이의 미학을 위하여』. 서울: 열린 책들.
- 정혜욱 옮김. 2002. 『번역과 제국-포스트 식민주의 이론 해설』. 서울: 동문선 (Douglas Robinson. 1997. *Translation and Empire: Postcolonial Theories Explained*. Manchester: St. Jerome).
- 한국번역학회 옮김. 2008. 『라우트리지 번역학 백과사전』. 서울: 한신문화사. (Mona Baker, Gabriela Saldanha Ed. 2001. *Routledge Encyclopedia of Translation Studies*. New York: Routledge).
- Bassnett, Susan. 2002. *Translation Studies* (3rd ed.). New York: Routledge.
- Benjamin, Walter. 1969. *Illuminations*. New York: Schocken.
- Berman, Antoine. 1985. “Translation and the Trials of the Foreign”. In. L. Venuti (Ed.), *The Translation Studies Reader* (pp. 284-298). London: Routledge.
- Hermans, Theo. Ed. 1985. *The Manipulation of Literature: Studies in Literary Translation*.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Munday, Jeremy. 2001. *Introducing Translation Studies: Theories and applications*. New York: Routledge.
- Newmark, Peter. 2007. “A New Theory of Translation.” Lecture. The Department of English and American Studies. Faculty of Arts. Masaryk University. 13 Apr. 2007.
- Pym, Anthony et al. Ed. 2008. *Beyond Descriptive Translation Studies: Investigations in homage to Gideon Toury*. Amsterdam: John Benjamins.
- Ricoeur, Paul. 2006. *On Translation*. New York: Routledge.
- Schleiermacher, Friedrich. 1992. “From On the Different Methods of Translating”. In. Rainer Schulte (Ed.), *Theories of Translation* (pp. 36-54). Chicago: U of Chicago P.
- Schulte, Rainer, and Biguenet, John. Ed. 1992. *Theories of Translation* Chicago: U of Chicago P.
- Snell-Hornby, Mary. 2006. *The Turns of Translation Studies*. Philadelphia: John

Benjamins.

Steiner, George. 1998. *After Babel* (3rd ed.). Oxford: Oxford UP.

Toury, Gideon. 1985. "A Rationale for Descriptive Translation Studies". In:
Theo Hermans (Ed.), *The Manipulation of Literature: Studies in Literary
Translation* (pp. 16-41) New York: Palgrave Macmillan.

Venuti, Lawrence. 1998. *The Scandals of Translation: Towards an ethics of
difference*. New York: Routledge.

_____. Ed. 2001. *The Translation Studies Reader*. New York: Routledge.

[Abstract]

A Critical Review Contrasting Venuti’s “Ethics of Difference” and Foreignization with Berman’s Understanding of Foreignization

Lee, Mi-kyung

(Pusan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explores two different aspects of “foreignization” in translation with respect to the translator’s role and the concepts of translation discourse. Foreignization is a notion that dates back to the well-known German theologian Friedrich Schleiermacher, and it has been discussed by many translation theorists with regard to its binary opposite, “domestication”. Lawrence Venuti, one of the most active post-colonial theorists in translation studies, tries to reveal the asymmetrical relations inherent in any translation project, intending to subvert the hegemonic language and culture by revealing the inequalities present in translation. Venuti starts his argument in a very controversial work based on the post colonial perspective, *“The Scandals of Translation: Towards an ethics of difference,”* by agreeing with Berman’s suspicions of “any literary translation that mystifies the inevitable domestication as an untroubled communicative act”. Berman suggests examining the deforming tendencies in translation “to receive the Foreign as Foreign,” which he calls “the analytic”. What makes the distinction between the ideas of Venuti and Berman is the translator’s status they define. Venuti claims that the translator should never be invisible and the translator’s “heterogeneous discourse” is critical in foreignizing translation. In contrast, Berman says the analytic in translation focuses on “the universals of deformation inherent in translating as such.” He maintains that the “negative analytic” should be extended by a “positive analytic”, an analysis of operations which have always limit the deformation, and it should be practiced in literary translation by a manipulation of signifiers.

▶ Key Words: foreignization, Venuti, heterogeneous discourse, ethics of difference, Berman, the analytic

이미경

부산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강사

indians11@hotmail.com

관심분야: 번역사, 번역철학, 문학번역

논문투고일: 2009년 5월 2일

심사완료일: 2009년 5월 23일

게재확정일: 2009년 6월 12일